

MILAL & WORLD 05

장애인 전도 / 봉사 / 계몽

밀알&세계





표지사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밀알의 모든 가정들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축복이 충만하길 바란다.
We pray that God's comfort, love, and blessings will abound in every Milal family in May, the Month for Family.

02 | 칼럼
완벽함보다 함께 행복한 사랑

04 | 제9회 함께걸음콘서트
하나의 무대, 공동의 부름

06 | 2026년 기획 연재: 밀알의 장애인신학 이야기(5)
성육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08 | 아름다운 섬김
2026 희망과 꿈 컨퍼런스

10 | 성찰과 소망의 고백
내가 살아가는 이유

12 | 사랑의교실 봄 소풍 & 밀알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텍사스의 봄 향기를 만끽하다

14 | 월드미션대학 8개월 실습 과정을 마치며
사랑이 흘러 넘치는 자리

17 | 밀알과 함께
봉사가 바꾼 나의 삶, 나의 시선

밀알&세계

남가주 • 북가주 • 시애틀 • 밴쿠버 • 텍사스 통합판

통권 제303호 | 2026년 5월호
발행인: 이재서 | 편집인: 장영준 | 편집책임: 이준수

지역별 구독문의
남가주: 562-229-0001 | 북가주: 408-605-2134
시애틀: 425-444-1669 | 밴쿠버: 604-339-4417
텍사스: 267-467-5971

월간 <밀알&세계>는 장애인들과 함께하길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성껏 만듭니다.

월간 <밀알&세계>에 관한 좋은 의견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mweditor@milalsca.org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칼럼

완벽함보다 함께 행복한 사랑 Love That Chooses Joy Over Perfection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계절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족을 떠올립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공통된 소망이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부족함 없는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더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 하고, 더 건강한 몸과 단단한 마음을 가지기

May is Family Month. During this season, our hearts naturally turn toward family. There is a common longing in every parent's heart: the desire to give our children the very best, to provide them with a better environment, and above all, to become parents who lack nothing for them. For this reason, parents strive to become people who can wait longer, who can carry healthier bodies and stronger hearts. In relationships, they seek to grow in wisdom; in daily life, they work to build a more stable environment; and in faith, they hold on to an unwavering trust in God.

Yet, a parent's love for a child is always greater than one's own abilities. Because of this, we often find ourselves feeling inadequate and blaming ourselves. At times, that heavy burden comes to us as exhaustion and anxiety. In addition, we live in a world overflowing with information. There is no shortage of advice on better educational methods, more effective therapies, and improved ways of parenting. Yet sometimes, rather than helping us, this overwhelming amount of information only makes our hearts more anxious and restless.



위해 애씁니다. 관계 속에서는 더 지혜로워지려 하고, 삶의 자리에서는 더 안정된 환경을 준비하며, 신앙 안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자신의 능력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부족하게 여기며 자책합니다. 때로는 그 무거운 마음이 지침과 불안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 속에 살아갑니다. 더 좋은 교육법과 치료, 더 나은 양육 방식에 대한 정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많은 정보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최근 읽고 있는 『나는 당신의 숙제가 아니에요』라는 책에서 제 마음을 깊이 붙든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부모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부모입니다.” 이 문장은 저를 포함한 밀알의 사역자들과 부모님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완벽해지기 위해 애쓰며 자주 넘어지지만, 사랑 안에서 함께 행복해지

는 일은 오늘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의 마지막에는 발달장애 자녀의 마음을 대신해 부모에게 전하는 편지가 실려 있습니다. “내 작고 작은 성취 하나에도 마치 세상에서 내가 처음 그 일을 해낸 사람인 양 기뻐하는 당신… 당신은 언제나 나의 울트라 슈퍼 영웅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 줘서, 나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아 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자녀가 부모에게 전하는 가장 깊은 감사와 사랑의 찬사일 것입니다.

오늘도 지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의 손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들께서, 여전히 부족하고 모난 우리를 있는 그대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가정들이 완벽함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 사랑과 기쁨 안에서 함께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cently, while reading the book <I Am Not Your Homework>, one sentence deeply stayed with me: “What a child needs is not a perfect parent, but a parent who can be happy together with the child.” This sentence brings great comfort to Milal’s ministers, parents, and to me personally. We often stumble in our efforts to become perfect, but living in love and finding happiness together is something we can begin even today.

At the end of the book, there is a letter written as if from the heart of a child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their parents: “For every small achievement of mine, you rejoice as if I were the first person in the world to accomplish it... You are always my ultra-super hero. Thank you for never giving up on me, and for never giving up on my happiness. I love you.” These words are perhaps the deepest expression of gratitude and love that a child

can offer to their parents.

Today, I pray that all parents who continue to hold the hands of their loved ones through weary and heavy days may find comfort in God the Father, who delights in and loves us just as we are, with all our imperfections and rough edges, and that they may rise again with renewed strength.

As we enter May, Family Month, may our families be freed from the burden of perfection and instead discover joy in loving and being happy together.

Writer | **Rev. Steve Lee**
(President of Milal Mission in Carolina)



사람들은 종종 언어와 문화, 그리고 음악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준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음악은 설명 없이도 경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음악은 말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이르고, 서로의 차이가 남아 있는 자리에서도 우리를 이어줍니다. 2015년부터 밴쿠버 밀알 [함께걸음콘서트]는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 다른 능력과 배경을 가진 이들을 하나의 음악적 기준과 함께 속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함께걸음콘서트]는 전문적으로 준비된 오케스트라와 합창 공연입니다. Harmonia Ensemble과 밀알 합창단

을 비롯한 연주자들은 절제된 연습과 기술적 성장, 그리고 예술적 완성도를 향해 꾸준히 헌신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함께걸음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 차원으로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행사를 넘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빚어진 콘서트입니다. 이곳은 인정받기 위해 무대에 서는 자리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씩 다시 올려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걸음콘서트]는 첫 음이 울리기 전부터 이미 시작된 예배입니다.

[함께걸음콘서트]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가자이든, 밀알 리더이든, 관객이든,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어떤 공간 안으

| 제9회 함께걸음콘서트(WithYou Concert)

하나의 무대, 공동의 부르심 One Stage, A Shared Calling



People often say that language, culture, and music bring people together. Among them, music has a unique way of crossing boundaries without explanation. It reaches where words cannot and connects where differences remain. Since 2015, the WithYou Concert has been doing just that, bringing together individuals of diverse abilities and backgrounds through a shared standard of music and a shared space of belonging.

The WithYou Concert is a professionally prepared orchestral and choral performance. Musicians, including the Harmonia Ensemble and the Milal

Choir, commit to disciplined rehearsal, technical growth, and artistic excellence. At the same time, the WithYou Concert exists for a reason that goes beyond performance. It is not simply an event, but a gathering shaped by the heart of Christ. It is a space where people come not to perform for recognition, but to offer what they have been given back to God. In that sense, the WithYou Concert is an act of worship long before the first note is sung.

To take part in the WithYou Concert, whether as a participant, volunteer, or audience member, is to step into something larger than oneself. It is an

로 들어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해 어떻게 다르게 일하시는지를 목격하도록 초대받는 자리이며, 우리가 익숙하게 정의해 온 능력과 기여의 기준을 넘어, 존엄과 아름다움, 그리고 목적이 드러나는 순간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밀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로 나누기보다, 하나님의 비전과 그분의 나라 안에서 함께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함께걸음콘서트]는 이 여정의 연장선 위에 있으며, 한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 주는 분

명한 표현입니다.

다가오는 [제9회 함께걸음콘서트]를 바라보며,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단순히 참석하는 것을 넘어,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귀 기울여 듣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기뻐하고, 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티켓구매: VancouverMilal.com



invitation to witness how God works through each person uniquely, revealing dignity, beauty, and purpose in ways that challenge our usual definitions of ability and contribution.

Milal continues to be a place where unity in Christ is not just spoken of, but lived out. We are being shaped together toward His likeness, aligned not by our differences, but by His vision and His kingdom. The WithYou Concert stands as a continuation of this shared journey, a visible expression of what happens when a community moves in the same direction under Christ.

As we look ahead to the 9th annual WithYou Concert, I invite you to come and take part. Not simply to attend, but to witness, to listen, and to join in what God is doing among us. It is a moment to celebrate, to reflect, and to be reminded that we are, all of us, called into the Kingdom of God together.

Writer | **Esther Rhi**

(2006-03 Volunteer at Milal Mission in Vancouver)

성육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며

What Does Incarnation Mean?

- Rethinking God Who Came in the Flesh

말은 하지 못하지만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는 한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이해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익숙한 찬양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반응하며 그 자리에 함께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묻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과연 온전한 예배에 가까워지고 있는가?

우리는 쉽게 예배를 '이해'로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오래 바라볼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 질문 자체가 이미 특

There is a person with a disability who never misses a weekly worship service, though he cannot speak. While we may never know how much he understands, he responds to familiar hymns in his own unique way, simply being present in that space. Watching him, I find myself asking: "Is our worship truly moving closer to becoming 'whole'?"

We often fall into the trap of judging worship based on 'understanding.' However, the longer I observe, the more I realize that even the question itself is built upon a certain biased standard. This leads to a deeper inquiry: "Is worship only complete when it is understood? Does the body only hold meaning when it follows intellectual comprehension?"

The Christian faith begins with the confession that

God became human. Yet, we rarely ask enough about the true weight of that event. God could have worked sufficiently through words or pure power, but He chose not to. Instead, He entered into human life. He put on flesh and directly experienced fatigue, hunger, and the pain of relationships. This signifies that He did more than just 'understand' us; He personally endured human life alongside us.

We easily compare and evaluate bodies. We set the 'well-functioning body' as the standard and demand explanations or compensations for those that do not meet it. But the Incarnation brings such standards to a halt. God did not accept a body of superior condition; He embraced the human body exactly as it was, with all its weaknesses and limitations. Holding onto this truth, we come to realize that the body is not a state to be perfected,

정 기준 위에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질문이 생깁니다. “예배는 이해될 때만 완성되는가? 몸은 이해를 따라야만 의미를 가지는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건의 의미를 충분히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나 능력으로도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인간의 삶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몸을 입고 피로와 배고픔, 관계의 아픔까지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해를 넘어, 인간의 삶을 함께 감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몸을 쉽게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더 잘 기능하는 몸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지 않은 몸에는 설명과 보안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육신은 이러한 기준을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조건의 몸이 아니라, 연약함과 한계를 가진 인간의 몸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붙들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몸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리라는 것을...

예배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집중이 흐트

러지고, 같은 말이 반복되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흐름을 바로잡을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 함께 머물 것인가. 모든 것을 정리하면 예배는 더 매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흐름을 고치지 않고, 속도를 맞추지 않으며, 함께 머무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속도에 맞추어 기다리는 시간, 반복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사실이란 것을...

몸으로 오신 하나님은 멀리서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가까이 오셔서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멀리서 이해하려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가까이에서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성육신을 따라가는 삶일 것입니다.

but a place where we live out our relationships.

There are days when worship does not go as planned. Focus is shattered, words are repeated, and the unexpected occurs. In those moments, we must choose: will we correct the flow, or will we remain present together? If we tidy everything up, the service may become smoother, but in that process, someone may no longer be able to stay in that space. Therefore, we sometimes choose not to fix the flow, not to force the pace, but simply to stay together.

This choice may seem inefficient, but it is never a waste of time. In the time spent waiting at someone else's pace, in the process of repeating and accepting, we realize that this is not mere consideration for others-it is a way of living together.

God, who came in the flesh, did not change us from a distance. He came close and stayed with us. He did not leave. Thus, we must ask ourselves once more: "How far away are we standing while trying to 'understand'? And how prepared are we to live together from up close?" This question does not end easily. But perhaps holding onto this question is exactly what it means to live a life that follows the Incarnation.

Writer | **Rev. Jungki Kim**

(President of Milal Mission in N. California)





| 아름다운 섬김

2026 희망과 꿈 컨퍼런스

2026 Hopes and Dreams Conference

최근 이승민 목사님과 함께 사우스캐롤라이나 콜럼버스에서 열린 ‘2026 Hopes and Dreams Conference’에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흥미로울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밀알의 자원봉사자이자 후원자로서 무언가를 배우고 캐롤라이나 밀알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헌신적인 부모님들, 특수교육 교사들,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과 헌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지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나누어 주신 ‘수많은 실패와 장애물 속에서도 얻어낸 작은 승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밀알 사역을 바

Recently, I had the opportunity to attend the ‘2026 Hopes and Dreams Conference’ in Columbus, South Carolina, with Pastor Steve Lee. At first, I wondered how interesting it would be, but as a volunteer and supporter of Milal, I decided to attend in order to learn something meaningful and to better serve Carolina Milal.

Most of the attendees were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r professionals in related fields. That day, as I sat among devoted parents, special education teachers, social workers, and various professionals, I was able to witness up close how they live each day with deep earnestness and dedication.

In particular, listening to the parents share their stories of ‘small victories achieved through countless failures and obstacles’ brought about a significant change in the way I view Milal’s ministry. My perspective shifted from simply being a ‘volunteer’ to becoming a ‘fellow partner who walks alongside and supports the journey of families with disabilities.’

One of the most profound lessons I learned through this conference was the importance of inclusion within the community. I came to realize that Agape Class is not merely a weekend program or activity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라보는 제 마음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봉사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장애인 가족들의 여정을 함께 지지하고 동행하는 동역자’로 마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제가 가장 깊이 깨달은 것 중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의 ‘포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사랑의교실은 단순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말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소중한 숨통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시작된 희망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인내와 존중, 그리고 전문적인 돌봄을 통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원봉사자로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 품고 있는 희망과 꿈을 함께 맡아 섬기는 사람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희망은 사랑하는 자녀가 자신만의 세계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그 꿈은 그 아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존중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밀알과 모든 사역을 향한 저의 마음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단순히 토요일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 부모님들이 매일 마주하는 정서적 어려움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롤라이나 밀알이 모두에게 소속감과 안식을 주는 공동체로 계속 남아야 함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희망과 꿈이 오래 지속되는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 가는 여정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disabilities. Rather, it can become a precious lifeline and a strong source of support for both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I was also reminded that the hope that has begun within us is being made real in the field of ministry through patience, respect, and professional care.

As a volunteer, I came to understand that we are entrusted with serving alongside the hopes and dreams that parents hold for their children. That hope is the longing for their beloved children to discover joy within their own unique world, and that dream is for them to be loved and respected exactly as they are.

Through this conference, my heart for Milal and all of its ministries became even clearer. I realized that what is needed goes beyond simply attending a Saturday program; it is also the willingness to listen to the emotional challenges that parents face every day. I was once again reminded that Carolina Milal must continue to remain a community that offers belonging and rest to everyone. I am grateful to be part of this journey of helping turn their hopes and dreams into a lasting reality.

Writer | **Ben Hur**
(Board Member of Milal Mission in Carolina)

내가 살아가는 이유

The Reason That I Live

찬란한 문명의 이야기가 제 주위에는 산재해 있습니다. 굳이 음악 공연장에 가지 않아도 전파를 타고 흐르는 선율을 들으며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서툰 글씨체 대신 기계의 도움을 빌려 정갈한 문장을 세상에 내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곤 하는 것처럼, 눈부신 문명 속에서도 마치 자급자족하던 원시 시대에 놓인 듯 일상의 온갖 일을 제 손으로 직접 해결해 나갑니다. 곁에 아무도 없이 오직 저 혼자뿐이기 때문입니다.

Stories of dazzling civilization are scattered all around me. Even without going to a concert hall, I can find peace simply by listening to melodies carried over the airwaves. Instead of showing rough and awkward handwriting, I can produce neat and orderly letters with the help of machines. Just as one can feel lonely in the middle of a crowd, in the midst of this dazzling civilization, I sometimes feel as though I have been set down in a primitive age of self-sufficiency, where my own hands had to take care of everything in daily life. For there is no one else—only me.

I often feel that human instinct carries a kind of stubborn determination: when there is no one to help, we somehow force ourselves to do what must be done. These days, while washing dishes—a task that seems to have become my own exclusive right—I find myself gaining many insights.

아마도 사람의 본능에는 돕는 이가 없더라도 해야 할 일을 기어코 이루어 내는 의지가 깃들여 있는 듯합니다. 요즘은 저는 저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설거지를 하며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릇을 닦는 손을 주시하면 서도, 머릿속으로는 또 다른 깊은 생각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릇을 닦던 중 문득 ‘밀알선교단’이 제가 이 세상에서 허무하게 머물지 않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변화된 저의 모습을 너그럽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일그러진 모습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진솔하게 살아가는 밀알선교단의 여러 형제, 자매님들을 만난 덕분일 것입니다. 제가 ‘밀알선교단’이라는 성에 입성한 후, 또 다른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갈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족이 이뤄낸 ‘집단’이며, 동네는 가정들이 모여 만들어진 생활의 ‘터전’입니다. ‘향촌’ 역시 동네와 동네가 어우러져 이뤄진 것이지요. 마을과 국가가 합해져 비로소 지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는 6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으며, 그 수 많은 사람은 저마다 특유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참으로 유머러스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

Because apart from the gaze fixed on my hands washing the dishes, my mind can think of other things.

Today, as I was washing the dishes, it suddenly came to me that the ‘Milal’ helps me not to spend my life in this world in emptiness. Little by little, I have come to recognize the changes in myself without resentment. Perhaps this is because I have met many brothers and sisters in the ‘Milal’ who live honestly and sincerely with the lives they have been given, even in bodies that may seem broken or distorted. I believe that after entering the fortress called the ‘Milal’, I gained the courage to live with dignity in another kind of world.

A family is a ‘group’ made up of individual members. A neighborhood is a living ‘community’ formed by one family after another. What we call a

니다.

수를 세다 숨이 멈출지도 모를 만큼 많은 사람이 만약 모두 일률적으로 같은 모습이었다면 얼마나 싫증이 났을 까요. 하지만 각기 다른 모습이 우리의 삶을 흥미롭게 합니다. 물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져야 할 지계를 저 사람이 대신 지고 있는 것이라 여기니, 찌푸렸던 마음이 맑게 개었습니다.

성경에는 달란트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인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다고 투덜대며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종은 게으르다는 책망을 받았습시다. 쫓겨나 추위와 공포에 떨던 그 종은, 사실 게을렀다기보다 꿈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또한 형편이 달라지기 전에는 원대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무언가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고 나니, 비록 지금도 명확한 해답을 얻지는 못했으나 무언인가를 해야겠다는 용기가 꿈틀거림을 느낍니다.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찾아 기도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village or hometown is likewise made by neighborhoods gathering together. Added to these are nations, and together they make up the earth. More than six billion people live on this earth. Each of those countless people exists in a form uniquely their own. I sometimes think that God has a sense of humor.

If all those innumerable people—so many that one might lose breath trying to count them—looked exactly the same, life would become unbearably dull. But it is our different appearances that make life interesting. Of course, the very fact that I must receive help from someone else can wound my pride deeply. Yet when I began to think of it as someone else carrying the burden I was meant to bear, the bitterness in my heart gradually cleared.

In the Bible, there is the teaching about talents. I



do not know how many talents I have been given. The servant who complained that he had received only one talent, buried it in the ground, and then returned it as it was, was rebuked as a lazy servant. He was cast out, trembling in cold and fear. But I think it was not really laziness that ruined him—it was the lack of a dream.

I too had no great dream before my circumstances changed, On the contrary, once I found myself in a situation where I could no longer do things freely, something began to stir within me—a courage that says I must do something, even though I still have not found the answer. I must pray as I search for that unseen something. And it seems that this is the reason I live now.

Writer | **Boosoon Kim**
(Milal Mission in Washington D.C.)

텍사스의 봄 향기를 만끽하다

Savoring the Scent of Spring in Texas

지난 4월 11일(토), 텍사스밀알 사랑의교실은 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텍사스에서 봄을 느낄 수 있는 마지막 기간으로, 이 시기가 지나면 기온이 많이 상승하여 야외활동 하기엔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죠. 매년 찾아가는 사랑기도원에서 찬양과 예배, 그리고 UNT의 한 한국어를 배우는 동아리에서 친구들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라이트하우스 달라스교회에서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 주셔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한 때를 보냈습니다.

특히 이번엔 한국어에 관심있는 박사과정의 학생들이 모여 만든 한국어 학습 동아리에서 소풍을 위해 여러 활동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학생도 와서 예배와 찬양의 자리에 함께 하며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해 듣기로는 그 학생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준비했던 음식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지는 시간, 친구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괜찮은 시간, 참여하는 모두가 기

쁨을 만드는 시간, 그 소풍의 한 때를 준비하고 섬긴 모든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주신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한편, 5월2일에 있을 제5회 밀알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준비로, 오케스트라 모임은 매주 음악을 통한 향긋한 소리로 충만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올해는 벌써 5년째 연주회입니다. 다섯 해가 지나면서 하나님은 리더 선생님들을 모아 주셨고, 단원들의 연주 실력도 한층 더 향상시켜 주셨습니다. 현악뿐 아니라 관악파트도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갑니다. 이렇게 텍사스밀알의 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주회를 통해 오케스트라가 목격하는 일들이 잘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On Saturday, April 11, the Class Agape of Texas Milal Mission held its annual Spring Picnic. In Texas, this period is the last precious window to enjoy the spring before the intense summer heat arrives, making outdoor activities more challenging. We gathered at the Sarang Prayer Garden, a place we visit every year, for a time of heartfelt praise and worship. We were also joined by a student club from the University of North Texas(UNT), which organized special activities for our members. Thanks to the delicious lunch prepared by Lighthouse Dallas Church, our families enjoyed a wonderful time of fellowship together.

This year’s picnic was especially meaningful as a Korean language learning club, formed by Ph.D. students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prepared various programs for us. Among them was a girl student who had not yet known Jesus. Through this gathering, she joined us in worship and praise, hearing the Gospel for the first time. We have since heard that she

is making progress in their journey of faith. We truly witnessed God’s hand at work, guiding us in diverse and beautiful ways.

Whether it was watching the prepared food disappear as everyone ate with joy, seeing our friends run around freely without worry, or witnessing everyone contribute to the collective happiness—it was a time where joy was made by all. We are deeply grateful to everyone who prepared and served during this picnic. Above all, we thank God for bringing us together, allowing us to fellowship, and letting us experience His profound love.

Meanwhile, the Milal Mission is currently filled with the fragrant sounds of music as we prepare for the 5th Milal Orchestra Annual Concert on May 2nd. With each passing year, we witness remarkable growth. Now in its fifth year, God has gathered dedicated lead teachers and significantly enhanced the musical skills of our members. Our woodwind and brass sections are now coming into their own, alongside our strings. As the Texas spring deepens, so does our music. We pray that the goals of our orchestra will be fully realized through this upcoming concert.

Writer | Dept of Public Affairs at Milal Mission in Texas





| 월드미션대학 8개월 실습 과정을 마치며

**사랑이
흘러 넘치는
자리**
A Place
Where Love
Overflows

“어디에서 왔어?” 주차장에 막 차를 댈 때 한 청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낯선 사람임을 알아보고 내게 다가와 준 청년은 피터였습니다. 피터는 30년 넘게 뉴욕밀알선교단에 참여하고 있는 터줏대감과 같은 청년입니다. 밀알 청년들과 봉사자들에게 때마다 카드를 써주고 사랑을 고백할 만큼 사랑과정이 넘치는 청년입니다. 이토록 날마다 사랑과정이 넘치는 곳이 바로 뉴욕밀알선교단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수년 간 유치원교사로 근무해 오다가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시 공부를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실습할 기관을 찾고 있었는데,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시니어 센터를 염두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저의 발걸음은 뉴욕밀알로 옮겨졌고, 어느덧 8개월이라는 실습 기간을 보내며 밀알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뉴욕에 이민와서 밀알선교단의 이름을 익숙하게 들어왔지만, 부끄럽게도 가까이에서 관심을 가지지 못했으며, 더욱이 장애인을 만나고 접해 본 경험은 전무했습니다. 실습을 준비하면서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평안함도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밀알청년들을 만나고 난 느낌은 제가 염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모두가 너무 친근하고 정답다는 것이었습니다. 청년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고 편하게 어울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느 봉사자 청년이 저에게 한 말이 기억납니다. “집사님도 어느 덧 밀알에 스며드셨군요.”

밀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장애는 결핍이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안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소중하며 서로 사랑할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Where are you from?” a young man asked as I was just parking my car. Noticing that I was a stranger, he approached me with warmth and curiosity. His name was Peter. He has been part of the Milal Mission in New York for over 30 years, and is like a cornerstone of the community. Peter is someone who writes cards to the Milal members and volunteers, expressing his love and care whenever he has the chance. He is truly a person full of love and affection. This is the kind of place the NY Milal Mission is—a place where love overflows every single day.

I had worked as a kindergarten teacher for several years in bo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hen the pandemic began and I was no longer able to go to work, I found myself wanting to study again. That desire led me to pursue social work. As I approached graduation, I began searching for a place to complete my internship. Since I was interested in elderly welfare, I initially had a senior center in mind.

However, contrary to my expectations, my steps led me to the NY Milal Mission. And I have spent eight months there, continuing a meaningful connection with Milal. Although I had heard of the Milal Mission many times after immigrating to New York, I must admit that I had never taken a real interest in it. Moreover, I had no prior experience interacting with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s I prepared for my internship, I felt both worried and, strangely, at peace at the same time. When I finally met the Milal members, my concerns quickly disappeared. They were all incredibly warm, friendly, and welcoming. I was grateful that I could naturally engage in conversations and comfortably spend time with them. I still remember what one volunteer said to me: “You’ve already become part of Milal.”

Through my experiences at Milal and research on disability studies, I came to understand that all of us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Disability is not a deficiency or a problem, but rather one of the many diverse expressions within God’s creation. I realized that every person is precious and worthy of love. My time at Milal also became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my own shortcomings and grow. In particular, helping with

니다. 실습을 하며 그 동안의 저의 부족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도 되었습니다. 때마침 오픈한 ‘밀알 템포 커뮤니티 아카데미’에서 클래스를 도왔던 경험은 앞으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데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뉴욕밀알선교단에 와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밝은 모습의 장애인 청년들과 가족들은 물론 매주 어김없이 방문하여 헌신하시는 수십명의 봉사자 분들입니다. 밀알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자식처럼 살피시며 30년 넘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김자송 단장님을 비롯하여, 영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목사님들과 성경 교사들, 찬양팀, 학생 봉사자들, 그리고 따뜻한 돌봄과 식사를 도와주시는 권사님들 모두가 하나의 사랑의 띠로 연결된 것과 같이 잘 어우러져 밀알의 사역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밀알과 함께 하는 것을 예배의 감동을 통해 매주 느낄 수 있었습니다.

7살 일본인 꼬마 레오부터 나를 많이 따라준 18살의 한나, 그리고 나와 비슷한 또래의 명희, 순영, 은지 자매님들까지 밀알에서 함께 교제했던 모든 밀알 가족들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뉴욕 밀알선교단에서 실습의 경험을 갖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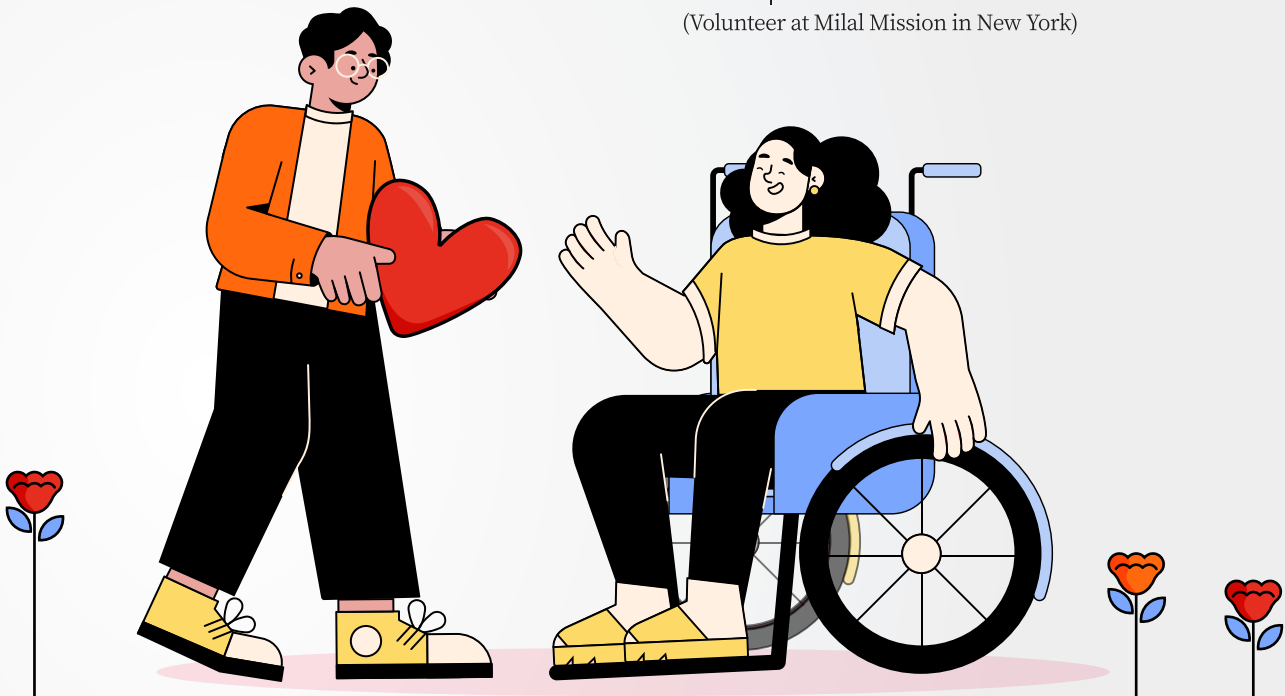
classes at the Milal Tempo Community Academy, which had just opened, was another meaningful experience. I believe it will serve as an important foundation for my future work as a social worker.

What impressed me most at the NY Milal Mission was not only the joyful and bright spirits of the members and their families, but also the countless volunteers who faithfully come every week to serve. The Director Jasong Kim, who has dedicated over 30 years caring for each member as if they were her own children, the pastors and Bible teachers who nurture spiritual growth, the praise team, student volunteers, and the women who lovingly prepare meals—all of them are bound together by a cord of love, working in harmony to sustain the ministry. Each week, through worship, I could deeply feel God’s grace and presence among us.

From Leo, a 7-year-old boy from Japan, to Hannah, an 18-year-old who followed me around so fondly, and to sisters Myunghee, Soon-young, and Eunji, who were around my age—every member of the Milal family I met will remain in my heart forever. I am deeply grateful and blessed for everyone at the NY Milal Mission who gave me the opportunity to have this invaluable internship experience.

Writer | **Moonhee Cho**

(Volunteer at Milal Mission in New York)



봉사가 바꾼 나의 삶, 나의 시선

How Volunteering Has Changed My Life & Perspective

오늘 저는 봉사라는 소중한 경험이 어떻게 저의 세상을 보는 방식을 진정으로 변화시켰는지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나의 책임이나 약속으로 시작했던 이 일이, 시간이 흐르면서 저의 시야를 넓혀주고 타인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만의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난 덕분에, 저와는 다른 삶의 현실들을 마주할 수 있었고, 그때 얻은 새로운 시각은 지금도 제 삶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봉사를 통해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소박한 순간순간들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봉사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쌓아가는 '관계' 그 자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에게 공감과 인내, 그리고 감사를 가르쳐 주었으며, 의미 있는 변화는 종종 작고 진실한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봉사는 제가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해야 하는지를 밝혀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Today, I stand before you to share how volunteering has truly transformed the way I see the world. What began as a responsibility or commitment gradually became an experience that broadened my perspective and changed how I understand others. Stepping outside my own routine allowed me to see realities different from my own, and that shift in perspective has stayed with me.

Through volunteering, I learned the importance of human connection. Simple moments showed me that service is not just about what we give, but about the relationships we build along the way. These experiences taught me empathy, patience, and gratitude, and reminded me that meaningful change often begins with small, genuine actions. Volunteering has not only allowed me to contribute to my community, but has also shaped who I am and how I choose to engage with the world.

Writer | **Paul Lee** (Volunteer at Milal Mission in New Jersey)



| 남가주

2026 밀알 서부지역 연합 사랑의캠프 개최

2026 밀알 서부지역 연합 사랑의캠프가 6월 25일(목)~27일(토)까지 California State University at Long Beach Campus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사랑의캠프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회에 맞춰 'Milal World Cup'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d the world)'란 요한복음 3:16 말씀을 중심으로, 장애인 참가자들과 봉사자들이 참여하는 월드컵 형식의 축구 경기 및 여러 레크리에이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년처럼 성찬식과 세족식을 거행하며 장애, 비장애를 초월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동등한 은혜를 나누고자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캠프 펀드레이징을 위해 맛있는 멕시코 치아파스 커피 (200g/\$10), 커피방향제 기프트 세트 (\$15), 커피방향제 (6 pouches/box, \$27) 비프저키(\$35), 최고급 참기름(\$33 등 물품판매도 진행되고 있으니 필요한 물품이 있으시면 남가주밀알 사무실로 연락주시시오. (Tel: 562-229-0001, Email: admin@milalsca.org).

코스보밀알 단기선교

오는 5월 18일부터 28일까지 밀알 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이 멀리 발칸반도에 위치한 코스보밀알에 단기선교를 다녀옵니다. 2017년 4월에 설립된 코스보밀알은 현재 김00 선교사님이 지소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현지 장애인,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스보밀알 단기선교를 통해 밀알가족들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LA 화요예배 (4월)

- 7일: 이종희 단장님께서 “부활의 열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원호함 간사님이, 특송은 석태경 집사님이 수여찬양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저녁 친교는 흥넌시 권사님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또 4월 생일 맞은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14일: 조영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송영석 전도사님이, 특송은 이윤희 간사님 & 제시카송 자매님이 섬겨 주셨습니다.
- 21일: 행복한교회에서 예배를 섬겨 주셨습니다. 전정하 담임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고, 대표기도, 특송, 저녁 친교 모두 행복한교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 28일: LA, OC 연합으로 Zoom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OC 목요일예배 (4월)

- 9일: 조영건 목사님이 “자족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문성철 선교사님이, 특송은 이윤희 간사님 & 제시카송 자매님이 섬겨 주셨습니다. 저녁 친교는 밀사모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4월 생일 맞은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16일: 이준수 목사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차별의식부터 떨쳐 버립시다”란 제목으로 말

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원호함 간사님이, 특송과 저녁 친교는 OC 한인교회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 23일: 이종희 단장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한연정 사모님이, 특송은 황우진 형제님이 섬겨 주셨습니다. 저녁 친교는 김윤덕 집사님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 30일: 짜장면데이로 모여 맛있는 식사와 함께 즐거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의교실 (4월)

- 4일: 고난주간을 맞아 사랑의교실은 한 주 쉬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 11일: LA 브랜치에서는 Griffith Sensory Park로 필드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다양한 감각 활동을 경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두가 함께 웃고 정성껏 준비한 점심을 나누며 행복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 18일: Integrated 브랜치에서는 참가자들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활동을 봉사자와 1:1로 함께하는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을 시작했습니다. 책 읽기, 퍼즐 맞추기, 악기 연주 등 각자의 흥미에 맞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앞으로의 성장과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25일: ELA 브랜치에서는 하이킹과 다양한 게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팀별 게임을 통해 서로 협력하며 팀워크를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제목

- 남가주밀알의 모든 사역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고,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장애인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 밀알가족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항상 주님의 보호와 인도가운데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 LA 화요모임, OC 목요모임이 계속 은혜롭게 진행되어 밀알가족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 토요일 사랑의교실 7개 브랜치가 은혜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고, 교사,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참가자들도 적극적으로 예배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밀알 가족들의 삶과 생업을 지켜주셔서 은혜가운데 모든 필요가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 스태프와 모든 밀알가족들, 후원해주시는 교회들과 후원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 감사 가운데 2026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 2026년도 밀알 장학생들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일군들로 준비되고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 5월 16일(토)에 열리는 ‘제42회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마당축제’와 6월 25일(목)~27일(토)에 개최되는 ‘2026 사랑의캠프’가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 코스보밀알 단기선교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속에 안전하고 유익하게 진행되도록.

| 북가주

북가주밀알 이모저모

-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이하여 북가주지역의 여러 교회에서 장애인주일로 섬겨 주셨습니다. 첫 장애인주일을 시작한 뉴비전교회(이진수 목사님), 그리고 계속해서 장애인주일을 통해 장애인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임마누엘장로교회(박성호 목사님), 주은혜교회(강희진 목사님)의 귀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 5월 16일(토), 북가주밀알 가족 소풍이 있습니다. 산호세 사랑의교실과 산타클라라 사랑의교실 가족 모두 함께 모이는 즐거운 봄 소풍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여름 사랑의캠프(6월 25~27일)를 위한 참기를 바자회가 각 교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함께해 주세요.

화요모임 (4월)

- 7일: 세계선교침례교회에서 임마누엘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섬김으로 따뜻한 저녁만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민호식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 14일: 부활절을 맞아 세계선교침례교회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에바다찬양단의 귀한 찬양과 특송으로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념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김정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 21일: 산호세한인장로교회를 방문하여 풍성한 식사교제를 나누며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한결같은 섬김으로 환영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정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 28일: 세계선교침례교회에서 시온영락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섬김으로 저녁만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와 찬양으로 한마음 되어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정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산호세 사랑의교실

4월의 점심식사로 섬겨 주신 산호세영락교회(4월), 선한샘교회(11일), 새누리교회(18일), 아가페교회(25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트지도를 수고해 주신 공은정 선생님, 태권도를 지도해 주신 이경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섬겨 주실 자원봉사자를 기다립니다. 미술, 게임, 체육활동, 태권도 및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도 및 함께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의 선한 영향력을 환영합니다.

산타클라라 사랑의교실

산타클라라 사랑의교실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광풍이 일어도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배는 안전하다는 것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 여행하는 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한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만 붙들면 결코 넘어지거나 물에 빠지는 일이 없음을 나누었습니다.

시원한 봄바람, 그리고 맑고 푸른 하늘을 만끽할 수 있는 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차로 30분 정도 이동하는 거리에 있는 Coyote Hills Regional Park입니다. Hiking 코스가 거칠지 않고 완만해서 모든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빨리 걷는 친구들과 조금 천천히 걷는 친구들이 있어서 다음에는 코스를 나누어서 걸으려고 합니다. 버디들과 걷고 이야기하고 사

진 찌는 모든 시간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친구들이 부활절 달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계란에 자기가 원하는 눈, 코, 입, 귀를 오려서 붙여 귀여운 달걀을 2개 만들어 하나는 다른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He is risen!' 주제로 팀별 릴레이 게임을 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Shorts도 만들고, Egg Ornament를 예쁘게 색칠하고, 부활에 관한 성경말씀을 찾아 쓰기도 하고, Egg Hunting을 통해 찾아낸 Egg로 Egg Tree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도제목

- 연약한 지체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장연화 자매님(재가장애인), 도한철 선교사님(루게릭), 로사 자매 아버지(건강회복), 이은희 작가님(신장투석), 윤정환 형제, 예진 자매 어머니(항암)
- 5월 16일 밀알 가족 소풍이 안전하고 즐거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여름 사랑의캠프(6월 25~27일)를 위한 참가를 바자회가 각 교회에서 잘 진행되어 충분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기를 소망합니다.
- 밀알 부모님들의 심령을 성령충만으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들을 섬기는 밀알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 밀알 사역자들이 지치지 않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섬기며 예배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 밀알가정들이 서로에게 위로와 감사가 가득한 관계로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지역교회의 장애인예배를 통하여 교회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날마다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시애틀

시애틀 사랑의교실

평안하시지요? 사랑의교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사랑의교실은 비가 오는 봄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형제교회 다운타운캠퍼스와 다른 순에서 오셔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장영준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고, 크래프트와 음악수업을 했습니다. 이날 점심은 시애틀연합장로교회 집사회에서 준비해 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랑의교실 되길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사랑의교실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30~오후 2:30까지 에드몬즈의 시애틀연합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준 목사 425-444-1669, 남성식 디렉터 425-361-9368)

시애틀 밀알아카데미(S.M.A)

매주 화요일 성인 장애인을 위한 정기모임이 있습니다. 음악수업, 크래프트, 탈춤, 북클럽, 산책, 마트 장보기, 영화보기 등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원래 계획은

UW 벚꽃을 구경하려고 했는데 아침부터 비가 와서 플랜B로 전환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우선 짜장면과 짬뽕, 탕수육을 입맛대로 먹었고, 그 다음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마침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해서 다들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계획대로는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에도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넘치는 SMA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더 많은 봉사자(남자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봉사자들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봉사자로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타코마 밀알아카데미(T.M.A)

매주 목요일 타코마 성인 장애인 정기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 음악수업, 체육, 크래프트, 산책, 견학 등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 장영준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고, 박현실 사모님이 음악수업을 해주셨습니다. 타코마중앙장로교회에서 정성으로 섬겨 주신 풍성한 점심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식사 후 부활절을 앞두고 애그헌팅을 했습니다. 모두들 눈을 크게 뜨고 감추어진 계란을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수업을 했습니다. 김홍철 목사님의 인도로 잘 했습니다. 2026년에도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남자 봉사자들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많은 봉사자들로 인해 TMA의 귀한 사역이 더 풍성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기름, 들기름 펀드레이징 시작

3월 14일부터 2026년 사랑의 캠프를 위한 펀드레이징으로 참기름, 들기름 펀드레이징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참기름 들기름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밀알의 사랑의 캠프를 위해 기도하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밀알에 귀한 사무실과 사랑의교실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시애틀연합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타코마 사랑의교실에 장소,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타코마중앙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S.M.A 장소와 15인승 Van을 사용하도록 해주시는 시애틀 형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매월 SMA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시애틀 주언약교회, 낮은 울타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매월 1회 사랑의교실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시애틀연합장로교회, 형제교회, 시애틀온누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알립니다

- 4월 6~20일 장영준 목사는 밀알선교단 설립 50주년 회의에 참석하고, 건강검진과 진료를 받으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 시애틀형제교회 Star Ministry(장애인 주일 학교)예배가 주일 오후12시에 있습니다.
 -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사랑부 예배가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 시애틀 온누리교회 사랑부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지역에 장애인(자폐 및 지적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 예배를 소개해 주세요.
- SMA(시애틀 성인장애인 모임), 매주 화요일 오전 10:30~오후3:00 성인장애인을 위한 예배와 활동(음악, 미술, 탈춤, 독서클럽, 산책,

시장보기, 체육, 외부활동)이 있습니다. 주위에 성인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실 봉사자가 있다면 밀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시애틀 형제교회 빌딩2, 109호) TMA(타코마 성인장애인 모임), 매주 목요일 오전 11:00~오후3:00 성인장애인을 위한 예배와 활동(음악, 미술, 요가, 산책, 체육, 외부활동)이 있습니다. 주위에 성인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실 봉사자가 있다면 밀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코마중앙장로교회)

밀알에서 필요한 것

- 시애틀 사랑의교실 친구들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할 개인과 교회를 찾습니다. (건축, 스포츠게임, Dancing, 태권도 지도, 동물원관광 등 사회적응프로그램 재정지원)
- 매주 토요일 사랑의교실에 필요한 점心和 간식을 제공해 주시고 봉사해 주실 교회나 단체, 개인이 필요합니다. (종이접시, 컵, 플라스트릭 수저, 포크, 냅킨, 물도 필요합니다)
- 매주 S.M.A(화)와 T.M.A(목) 성인장애인 예배와 활동 모임에 점심식사와 간식을 제공할 교회와 개인을 찾습니다. (20명)

기도제목

- 2026년에도 밀알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도록
- 미주밀알 총단장직을 맡은 장영준 목사의 건강과 지혜를 위하여
- 장애인 사역에 헌신된 사역자와 봉사자를 보내 주세요.
- 사랑의교실과 SMA & TMA친구들과 가정, 봉사자를 위하여
- SMA에 새로 오신 선생님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 새로운 사랑의교실 장애인 친구들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맘껏 이용할 수 있는 '밀알아트센터'가 세워지도록
- 매주 화, 목요일 진행되는 성인장애인의 모임인 SMA, TMA를 위하여
- 사랑의교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도록
- 시애틀 온누리교회 사랑부(장애인)사역을 위하여
- 타코마제일침례교회의 사랑부(장애인)사역을 위하여
- 시애틀 형제교회 장애인 주일학교 Star Ministry(장애인)를 위하여

| 밴쿠버

밀알 사랑의교실Happy Together

밀알에서 행복한 친구들과 밀알봉사와 함께 성장해 가는 발룬티어 밀알러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밴쿠버밀알 '사랑의교실 Happy Together'는 행복한 예배와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언제나 즐거운 환영송과 함께 시작하는 예배는 늘 뜨거운 찬양으로 주님을 송축합니다.

단장 이상현 목사님은 3월 21일에는 고린도 후서 12:9를 본문으로 'For in My Need, His Power is Displayed', 3월 28일에는 고린도 전서 15:58을 본문으로 'I labor on in weakness and rejoicing', 4월 11일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5 말씀을 본문으로 'We are Sons of the Light'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5월 24일에 여는 ‘함께걸음콘서트’에서 공연할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를 연습하면서, 그 가사가 담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신비와 우리 구원의 신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들으며 우리가 밀알에 있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밀알러는 버디에게 설교말씀의 중요한 내용을 다시 가르쳐주고, 말씀을 심화하는 활동시간을 가진 후에, 성경암송과 함께 점심식사를 합니다. 오후시간은 음악을 감상하는 랜선 음악여행과 체조로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에는 베뉴 정리정돈과 리뷰 후에, 밀알러가 함께 친구들과 밀알선교사역을 위한 기도회를 갖습니다.

점심을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 21일 만나교회(담임목사 손진웅), 3월 28일 한사랑교회(담임목사 신용규), 4월 11일 밴쿠버우리교회(담임목사 류문현).

발룬티어 밀알러 봄 엔티

3월 13-14일에는 발룬티어 밀알러 봄 엔티를 셋째마네기도원에 진행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성을 새롭게 하고, 특강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게임과 자유시간 등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결속하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봄 엔티를 위하여 지난 가을 엔티에 이어 류태준&김미숙 부부 집사님께서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회 함께걸음콘서트

제9회 함께걸음콘서트가 5월 24일 오후 7시, 15964 88 Ave, Surrey에서 열립니다. ‘하모니아 앙상블 현악 오케스트라’가 스페인 풍 음악을 연주하고, 밴쿠버밀알 합창단은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를 노래합니다. 이 행사를 위하여 스폰서와 도너로 참여하실 분은 연락주세요 (604-339-4417 단장 이상현 목사). <투게더 굿즈 프로젝트>도 진행합니다. 밴쿠버밀알러가 친구들과 함께 모든 종류의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시작한 투게더의 올해 판매 상품은 예쁜 후디와 튼튼한 우산입니다.

밀알 1일 단기선교

<밀알 1일 단기선교>는 아주 특별한 선교이며, 시간을 많이 내지 않고도, 따로 휴가를 내거나, 멀리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또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단기선교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밀알이 진행하는 사랑의 교실에 몇 시간 함께 하는 것으로 훌륭한 단기선교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문의, 604-339-4417 단장 이상현 목사).

밀알러(발룬티어) 리쿠르트

‘Love in Action, Faith in Motion!’ 밀알러로 함께할 발룬티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축복된 경험을 함께 하고 싶은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안내해 드리는 방법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밀알은 좋은 자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훌륭한 봉사자와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www.vancouvermilal.com > volunteer

밀알선교사역 나눔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밀알선교사역 및 장애인 ‘선교’에 관하여 알기 원하거나, 함께 할 관심이 있는 교회, 기관 및 단체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604-339-4417). 밀알선교사역 나눔은 설교, 선교설명회, 선교박람회 기회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e-transfer 후원방법 안내

이트랜스퍼를 통하여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밀알을 후원하시면 세금감면을 위한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하실 때, 영문이름, 포스탈코드를 포함한 주소,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연락처: giving@vancouvermilal.com)

The Prayer' & 'The Bridge

밀알선교사역을 위한 중보기도에 헌신하실 분을 찾아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월 \$10(한 구좌) 정기후원하실 분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구좌를 맡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제목

- 2026년에도 밴쿠버밀알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밴쿠버의 장애인들과 가정들이 밀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소망 안에 살게 하소서.
- 밀알가족들, 그리고 지역교회와 함께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장애인의 회복으로 표상되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쓰임 받게 하시고, 복음사역, 성령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이 되게 하시어 ‘사람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밀알로 세워주소서.
- 장애인선교를 위하여 함께 하는 이들과 기업들과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봉사자, 기도 및 재정 후원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분들을 축복하소서.
- 밀알 친구들에게 모든 종류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려는 굿즈프로젝트 <투게더>, 밀알러알롱나이클을 연결하는 <밴쿠버밀알러 프로젝트: ‘꿈너머 꿈’>을 위한 헌신자를 세워주시고, 잘 발전하여 하나님나라의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 <사랑의교실> <제9회 함께걸음콘서트, 5월 24일> <플레이랜드 데이캠프, 5월 30일> <썸머캠프, 6월 25-30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시간을 내어 함께 하는 봉사자들과 후원하는 이들을 일으켜 주소서.
- 단장 이상현 목사님과 유혜정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텍사스

토요 사랑의교실 (3월)

오전 10시부터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는 Bible study와 Art & Craft 활동을 설교중심으로 분반하여 진행하고, Gym으로 옮겨 가서 발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신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Bible study 와 Art & Craft 반을 스위치해서 진행한 후, 음악 치료를 했습니다.

여러 교회, 단체 및 개인들께서 재정과 음식으로 섬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scape Bakery 에서는 봉사자들을 위한 베이커리로 섬겨 주셨고, 7일에는 조이풀교회에서, 14일에는 참빛교회에서, 그리고 28일에는 뉴송교회에서 맛있는 점심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토요 사랑의교실에 점심봉사를 원하시는 개

인과 단체는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한 토요일 사랑의교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5세 이상 장애인들은 연락주세요. 267-467-5971, txmilal@gmail.com

2026년 제5회 밀알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일시: 2026년 5월 2일 (토) 6시
- 장소: 달라스 영락장로교회(850 Lexington Dr, Plano, TX 75075)

밀알 봄소풍

지난 4월 11일, 달라스 인근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랑수양관에서 봄소풍을 진행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달라스교회의 찬양인도와 점심, UNT 한국어 동아리팀의 활동인도로 풍성하고 즐거운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서부연합 여름 사랑의캠프 참가자 모집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LA인근 California State University at Long Beach Campus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캠프를 진행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문의: 밀알선교단 사무실 (267-467-5971)

여름성경학교 참가자 및 자원봉사자 모집

- 일시: 7월 6일~10일, 10:00~2:15
- 장소: 한우리미션센터
- 성경학교 등록비: \$20
- 참가자 대상: 모든 연령의 장애인
- 자원봉사자: 1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과 안전을 위한 1:1 매칭 봉사, 봉사시간 부여, 매일 9:30-2:20 참여, 사전 봉사자교육 있음, 하루 이상 봉사 가능한 모든 이 환영
- 문의: 텍사스밀알선교단 (267-467-5971, txmilal@gmail.com)

텍사스밀알 합창단원 모집

하나님을 노래를 통해 찬양하기 원하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비장애인 모두를 초대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밀알선교단으로 문의하세요.

267-467-5971, txmilal@gmail.com

기도제목

- 봄소풍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텍사스밀알선교단을 통해서 장애인이 영적으로 회복되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원 봉사자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한 봉사자들이 밀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밀알에서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동역자로 성장하게 하소서.
- 텍사스 다른 지역에 사랑의교실 사역을 확대 하길 원합니다. 합당한 만남을 주장하소서.
- 지금의 봉사자들이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워지게 하소서.
-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언어, 미술, 운동, 행동치료 등의 전문가 그룹을 조성하게 하시어 밀알 토브 사역이 진행되게 하소서.
- 지역의 여러 교회가 밀알 사역을 선교지로 알게 하시어, 선교에 동역하는 마음을 부어 주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장애인 선교의 창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도하소서.
- 6월 서부 사랑의캠프, 7월 여름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 합창단원이 모여져 하나님을 목소리로 찬양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소서.
- 2026년에 계획한 사역이 순적한 방법으로 진행되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이 이뤄지게 하소서.

재정보고 2026년 3월

| 남가주

■ INCOME: \$61,528.00

Individuals: \$7,339.00 \$30 Hyoung Seo, Jin Sook Kim, Youn G Ro / \$39 Missionary Deborah / \$50 Hye Ran Lee / \$60 Jack C. Kim / \$100 Anthony D. & Chun C. Gamble, Ho Myoung & Won Sook Lee, In Soon Chung, Ken Lee, Kyong Ok Lim, Sung Jin Kim, Young Soon Park / \$200 Jaemin Youk, Kyung Won & Sangmi Kang / \$300 David Heung & Jeong Mi Kim, Douglas Yongwoo Seo, Jae S & Eugene Lee, June Sin, Ki Sook & Yoon Ho Kan / \$500 Steven Chul Kim / \$1,000 Inju Uyehara, Keun Suk Park / \$2,000 Yong Gyu & Heakyung Jeon

Churches & Businesses: \$11,520.00 \$50 Alabama Full Gospel Church / \$100 God's Righteousness Church, Salt Covenant Church / \$150 The Lighthouse Mission Church / \$200 Choong Hyun Ch(Good Samaritan Fellowship), LA Mission Church of Hope, Light of Love Mission Church / \$220 Bethel Korean Church / \$250 El Paso Central Baptist Church / \$300 Berendo Street Baptist Church, Cerritos Presbyterian Church, Full Gospel L.A Church, H.D. Grace Church, Irury LLC, Las Vegas Vision Church,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The Lord's Community Church / \$400 Beautiful Hill Presbyterian Church / \$500 General Metal Recycling Co. / \$600 Sarang Community Church / \$900 Thanksgiving Church / \$1,200 New Spirit Church / \$1,300 Irvine New Life Korean Church / \$2,750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Specials & designated donation: \$42,669.00 \$50 Donor Advised Fund / \$1,200 Designated for Rent / \$50 Thursday worship birthday cake / \$500 Gloria for OC Jjajangmyeon Day / \$1,000 Grace Mission University NCI / \$300 Jun Soo Lee for Staff fellowship / \$90 Class AGAPE Outing fees / \$500 Jong Hee & Young Lee for Class AGAPE / \$300 Joanne Lee for Class AGAPE OC / \$6,800 Camp Fees / \$500 Eunsook Park Camp donation / \$15,000 Open Stewardship Grant / \$15,669 Camp Fundraising / \$710 Love Festival

■ EXPENSE: \$42,037.23

Class AGAPE: \$1,929.05 \$120.28 Class Outings / \$1,225.40 Meals & Snacks / \$583.37 Materials & Supplies

Camp AGAPE: \$1,063.73 \$637.50 Camp Supplies / \$426.23 Pre-Camp Expenses

Love Festival: \$1,547.77

Media Mission: \$4,080.63 \$1,650 M&W Publication / \$44.22 PO Box & Return mail / \$752.91 Magazine Shipping / \$1,633.50 Supplies

Meetings & Events: \$69.79 Meeting with Pastor Jungki Kim

Charitable Supports: \$3,394.96 \$500 Periodic Supports / \$300 Palm Misson Church / \$500 Lighthouse Studio / \$150 Condolences to Lee family / \$250 Funeral Flower for Park Family / \$250 Funeral Flower for Lee Family / \$500 Kosovo Milal / \$944.96 Tuesday & Thursday Worship

Fundraising Expense: \$12,106.29 Merchandise

Payroll Expense: \$9,368.13 \$5,803.66 Salaries & Wages / \$629.72 Payroll Tax / \$840 Employee Benefit / \$2,094.75 Housing Support

Admin & Management: \$7,877.55 \$5,011.23 Rent / \$60.89 Woongjin / \$332.25 FBM / \$139.95 Telephone & Internet / \$284.54 Electricity / \$8.73 Office supplies / \$196 Dues & Subscription / \$1,154.61 Alliance Fee for America Milal / \$337 Insurance / \$213 SBA EIDL Interest / \$139.35 Office Meals

Auto Expense: \$599.33 Gas

Previous Carry over Balance: \$43,889.92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63,380.69

■ Milal Scholarship Finance Report

INCOME: \$1,800.00 <Churches & Businesses \$600: \$300 Irvine Onnuri Church / \$300 Milal Mission in Philadelphia> <Specials & designated \$1,000: Julianne Lee designated for Jonghoon Lee> <Milal Night \$200: Brochure Ads>

EXPENSE: \$20,991.88 <Class AGAPE \$8,139: Teachers' Compensation> <Scholarship \$12,827.88: \$1,800 Collegians / \$1,000 Designated / \$1,200 Mexico Milal / \$7,927.88 Reserved Ministries Support / \$900 Volunteers Aids> <Bank Charge \$25>

Previous Carry over Balance: \$34,715.23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15,523.35

| 북가주

■ INCOME: \$9,815.11

Individuals: \$5,450.00 \$50 Kim Sinja, Kim Ae kyung, Kim Young, Nosook Douglass, Lee Woosung / \$100 Klepeis Family, Jonathan & Joung Ok Han, Kang Wonmo & Kim Yujin, Kim Manjong & Jeong A, Jeong Chanmi & Lee Sukkwon / \$200 Choi Yejin Family, Choi Younghun & Jaehyun / \$300 Kim Jungki & Nam Kyungah, Rachel Family / \$400 Lee Jisun & Hakchon / \$500 Cha Hyunsang & Kim Eunmi / \$600 Oh Youngsoo / \$2,200 Oh Myong S.

Churches & Businesses: \$3,235.11 \$85.11 IBM / \$100 Bruce Lee Hair Salon, San Jose Full Gospel Central Church, Tracy Lord's Grace Church / \$200 Joosongil P. Church / \$300 Monterey Korean First Presbyterian Church, Symphony Church / \$400 Silicon Valley Korean Presbyterian Church, Korea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 \$500 Woodman Insurance / \$750 SV World Mission Baptist Church

Designated Donation: \$1,130.00 <Class AGAPE \$300: \$100 Kim Jungki & Nam Kyungah / \$200 Ahn Subin Family> <Youth Milal \$400: \$100 Michael Family / \$300 Emmaus Mission Center> <Tuesday Worship \$420: \$100 Kim Jungki & Nam Kyungah, Lee Gangjin & Kwon Yujin / \$230 Jeon Songhwa>

■ EXPENSE: \$13,175.66

Mission Expense: \$9,374.35 Staff Compensation(5 persons) \$7,056.35 / Mission Activity Expenses \$330.14 / America Milal Support \$533.40 / Retirement Fund \$300 / Tuesday Worship \$367.11 / Condolence Expense \$100 / Class AGAPE \$687.35

Admin. & Management: \$2,267.89 Utilities \$151.42 / IRS Tax \$492.87 / Office Rent \$1,400 / Business Tax \$223.60

Auto Expense: \$212.50 Car Wash \$21.99 / Fuel \$190.51

Media Mission: \$1,320.92 Milal & World Newsletter Postage \$338.78 / Printing \$982.14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19,754.23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16,393.68

| 시애틀

■ **INCOME: \$37,417.98**

Individuals: \$4,490.00 \$30 남숙희 / \$50 이영자, 조성배, 박진경 / \$100 김해정, 송인숙, 경자훈, 오수미, 노현숙, 손희섭, 류준명 / \$150 김복조 / \$200 조천석 / \$300 조명연 / \$460 장영준&장아련 / \$500 이미나&밥브러쉬, 오상균, 허순무 / \$1,000 이명운

Churches: \$3,650.00 \$100 밴쿠버 사랑장로교회, 자유교회, 벨링햄화평교회, 순복음큰빛교회, 타코마 삼일교회, 시애틀 물댄동산교회, 목양감리교회 / \$150 페더럴웨이 벤엘침례교회 / \$200 페더럴웨이 중앙장로교회 / \$300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낮은울타리교회 / \$400 브레머튼 한인장로교회, 시애틀 평강장로교회 / \$1,200 로고스라이프교회

Businesses: \$300.00 Fair Ridge Law Firm

Designated Donation: \$28,977.98 SMA & TMA \$1,990(\$1,490 참가비, \$500 이현주) / Fundraising \$26,987.98

■ **EXPENSE: \$45,428.12**

Mission Expense \$3,828.44 / Admin & Management \$1,427.96 / Media Mission \$1,338.53 / Class AGAPE \$629.01 / 상회비 \$370.20 / SMA&TMA \$1,939.50 / Tax \$481.60 / Special event \$1,803.76 / Fundraising \$32,884.00 / Insurances \$338.11 / Pastoral Visit \$87.01 / Retirement Plan \$300.00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60,678.58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52,668.44

| 밴쿠버

■ **INCOME \$6,650.00**

Individuals: \$2,270.00 \$10 김형용, 계영실 / \$20 이경순, 한은순 / \$30 원소현, 테레사최, 정미영 / \$50 이해영, 이재림 / \$100 이상현&유혜정 / \$200 하준석, 윤상미 / \$500 남상국 / \$1,000 박혜은(주천)

Churches & Businesses: \$500.00 \$100 헤브론교회 / \$200 오로니아, WJD Foundation

Specials & Designated Donation: \$3,880.00 <사랑의교실베뉴 \$1,050: \$50 오정석, 강향숙 / \$100 곽혜경, 허경찬 / \$150 이상화 / \$300 김계은, 김타숙> <3월 사랑의교실 예배헌금 \$320: \$10 윤관진 / \$20 김도건, 오예찬, 허예나 / \$40 에드윈 / \$50 박수영, 장믿음 / \$100 이해 / \$10 무명> <봄 엔티 참가비 \$710> <함께걸음콘서트 티켓 \$300: \$100 선순숙 / \$200 WJD Foundation> <designated \$1,500: 코람데오>

■ **EXPENSE: \$8,896.28**

Payrolls: \$4,221.18 사례비(2인) \$3,771.18 / 은급비(1/4) \$450

Events: \$282.80 <함께걸음콘서트> 활동비 \$42 / 포스터&티켓 인쇄비 \$240.80

Class AGAPE: \$1,083.92 <Happy Together Class \$194.40: 통신비 \$61.60 / 줌사용료 \$83.42 (3월) / 소모품 \$3.08> <밀알러봄 엔티 \$889.52: 메뉴 \$200 / 경비 \$689.52>

Admin & Management: \$341.74 통신비 \$67.20 / 복사용지 \$44.99 / 애뉴얼리포트 fee \$40 (2025), \$40 (2026) / 우편료 \$3.05 / 코스코카드리뉴얼 \$136.50 / 은행 fee \$11

Taxes: \$532.51 payroll(3월)

Auto Expense: \$934.13 운행비 \$300.88 / 보험(4회차) \$203.71 / 뱅 payment \$429.54

Designated Expense: \$1,500.00 코람데오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15,062.94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12,816.66

| 텍사스

■ **INCOME: \$6,531.10**

INDIVIDUALS: \$935.00 \$20 진현주 / \$25 방진원 / \$50 김태남 & 이선화, 김희경, 정선혜 / \$80 정호영 / \$180 채경수&임현정 / \$480 박진영

CHURCHES & BUSINESSES: \$1,756.10 \$6.10 interest / \$50 프렌즈교회, 포트워스제일장로교회 / \$100 나눔교회, 빛과소금의교회 / \$150 영락장로교회 / \$200 제자침례교회 / \$300 주님의교회 / \$800 베다니장로교회

DESIGNATED DONATION: \$3,840.00 <사랑의교실: \$200 무명 / \$340 FENY / \$500 Justin Kim / \$1,300 The One Hero Project> <아카데미&오케스트라: \$100 구분진 / \$1,000 빛내리교회> <직업재활: \$400 세미한교회 Beanyard Coffee>

FOOD SUPPORT: Escape Bakery, 조이폴교회, 참빛교회, 뉴송교회

■ **EXPENSE: \$11,211.67**

MISSION EXPENSE: \$4,374.24 Payroll \$1,385 / housing support \$1,700 / 밀알&세계 인쇄비 \$460 / 지단상회비 \$160.27 / 은급비 \$288.02 / 간사사례 \$300 / 단장식사 \$80.95

CLASS AGAPE & 밀알아카데미 & 오케스트라: \$4,670.00 강사료 \$640 / 포스터 \$430 / 장학금 \$3,600

ADMIN & MANEGEMENT: \$2,167.43 장소사용료 \$200 / 카드 등 재정관련 수수료 \$65.41 / 통신비 \$100 / IRA tax \$229.50 / NTTA toll \$240 / Gas \$286.37 / Insurance \$100 / Utility \$298.21 / 우표구입 \$78 / 차량수리비 \$569.94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10,266.40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5,585.83

밀알선교단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장애인 발걸, 장애인 방문 예배, 장애인 성경공부, 단원 정기모임, 병원전도,
사랑의캠프, 장애아동 사랑의 교실, 밀알지부 개척, 선교사 파송 및 지원

서로 어려움을 나눕니다.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녹음, 복지홈 운영, 수어통역, Ride 봉사

신앙공동체에 참사랑을 심습니다.

교회 및 단체 방문 찬양과 설교, 수어교육, 밀알의밤, 장애인의 날 행사, 매월 <밀알&세계>발간, 장애인 선교방송

후원방법: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가까운 밀알선교단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밀알단원 신청서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이메일: _____

단원종류: 기도단원() 실행단원() 후원단원() 월 \$5() \$10() \$20() \$30() \$50() \$100() 그외 \$()

서명: _____ 날짜: _____

The World Milal Association 세계밀알연합 | worldmilal.org

서울 동작구 솔밭로 97-6, 3층 / Tel: 02-533-9251 / Fax: 02-533-9258 / wmlal@worldmilal.org

American Milal Mission Inc. 미주밀알선교단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229-0001 / Fax: 562-229-0006 / wheatmissioninus@gmail.com

Milal Mission in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밀알선교단 (이종희 단장) | milalsca.org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229-0001 / admin@milalsca.org

정기모임	OC	매주 목 오후 7: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LA	매주 화 오후 7:00	남가주새누리교회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밝은예배	매월 마지막 화요일 오후 7:00 (현재는 Zoom으로 드리는 월례기도회로 대체)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사랑의교실	OC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남가주연합장로교회	1565 W. Katella Ave., Anaheim, CA, 92802
	LA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동부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선한청지기교회	2701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얼바인	매주 토 오전 9:30 ~ 오후 1:30	얼바인은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토렌스	매주 토 오전 9:30 ~ 오후 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1880 Crenshaw Bl., Torrance, CA 90501
	성인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남가주밀알 사무실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통합반	매주 토 오후 2:30 ~ 오후 6:30	남가주밀알사무실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Milal Mission in Northern California 북가주밀알선교단 (김정기 단장) | milalnca.org

871 Coleman Ave. Suite 205, San Jose, CA 95110 / Tel: 408-605-2134 / norcalmilal@gmail.com

장애인과 함께 나누는 예배와 찬양모임

정기화요모임	산호세	매주 화요일 저녁 6:30 ~ 9:00	세계선교침례교회(1,2,4,5주)	62 S.San Tomas Aquino Rd, Campbell, CA 95008
			산호세한인장로교회(3주)	770 Lucerne Dr. Sunnyvale, CA 94085
사랑의교실	산호세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3:00	산호세새소망교회	2900 Patrick Henry Dr. Santa Clara, CA 95054
	산타클라라	매주 토 오전 10:30 ~ 오후 3:30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1001 Ginger Lane, San Jose, CA 95128

Milal Mission in Seattle 시애틀밀알선교단 (장영준 단장) | seattlemilal.com

8506 238th St. SW, Edmonds, WA 98026 / Tel: 425-444-1669 / Fax: 425-774-2499 / seattlemilal@gmail.com

사랑의교실	시애틀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오후 2:30	시애틀연합장로교회	8506 238th. SW, Edmonds, WA 98026
Seattle Milal Academy (성인 장애인)		매주 화요일 오전 10:30 ~ 오후 3:00	시애틀형제교회	3700 Monte Villa Pkwy. Bothell, WA 98021
Tacoma Milal Academy (성인 장애인)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 오후 3:00	타코마중앙장로교회	8001 Pine St. S. Lakewood, WA 98499

Milal Mission in Vancouver 밴쿠버밀알선교단 (이상현 단장) | vancouvermilal.com

Instagram: @Vancouver_milal | Youtube: @Woorilog 우리로그, @Vancouvermilal 밴쿠버밀알

14625 108 Ave, Surrey, Upper Room, BC, V3R 1V9 CANADA / Tel: 604-339-4417 / vanmilal01@gmail.com

사랑의교실	토요모임 Happy Together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12:00	씨리장로교회	15964 88th Ave., Surrey, BC, V4N 1H5
			예배, 작업치료, 음악, 댄스, 사진, 크래프트, 운동, 레크레이션, 베이킹, 공동식사, 아웃팅, 난타교실	

Texas Milal Mission 텍사스밀알선교단 (채경수 단장) | txmilal.org | facebook.com/texasmilal

2828 E. Trinity Mills Rd, #360, Carrollton, TX 75006 / Tel: 267-467-5971 / Fax: 682-292-1365 / txmilal@gmail.com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9:30 ~ 오후 1:3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밀알성경적상담	매주 월~금 오전 10:00 ~ 오후 3:00	밀알선교센터	2828 E. Trinity Mills Rd, #300, Carrollton, TX 75006
목요 밀알아카데미	매주 목요일 오후 1:00 ~ 오후 4:00	달라스우리교회	2633 Royal Ln, Dallas, TX 75229
밀알청년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5:00 ~ 오후 6:0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밀알 청년오케스트라	매주 토요일 오후 2:00 ~ 오후 4:0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화요 온라인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	Zoom ID: 895 0864 4965 / Passcode : 152562	

전세계에 퍼져있는 밀알들

세밀연 미주총단	워싱턴 / 리치몬드 / 캐롤라이나 / 필라델피아 / 시카고 / 뉴욕 / 뉴저지 / 애틀랜타 / 시애틀 / 북가주 / 남가주 / 텍사스 마이애미 / 캐나다(토론토) / 밴쿠버 / 브라질 / 파라과이 / 아르헨티나 / 과테말라 / 멕시코
세밀연 유럽총단	북부독일 / 중부독일 / 남부독일 / 베를린 / 오스트리아 / 프랑스 / 스페인 / 포르투갈 / 헝가리 / 벨기에 / 우크라이나 / 바르셀로나 / 베오그라드 / 코소보
세밀연 한국총단	경기 / 전남동부 / 김포강화 / 거제통영 / 목포 / 부산 / 수원 / 용인 / 고양 / 구미김천 / 양산 / 경기광주 / 고흥보성
기타지역	뉴질랜드 / 호주 / C국(A,B) / 방글라데시